

## 사회



##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지사는 11일 임동 광주시 북구 봉사관에서 한인 KDN봉사자들과 함께 초복(18일)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 점심을 대접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교육청, 모의고사 평가 결과 제공 중단

## 광주지역 고교 진학지도 혼선

## “학교 서열화 부작용” 해명

광주지역 고등학교들이 진학지도에 기분이 되는 각종 모의고사 평가 결과를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해 불만이 크다.

이 자료는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수년간 제공해왔던 학교별 최상위 등급 현황으로 일선 학교에서 진학지도에 큰 도움을 줬다.

11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고등학생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와 3학년 수능 모의평가 결과 자료 등을 주지 않고 있다. 자료제공 중단 이후 3학년은 4월 연합평가와 6월 수능모의평가, 1·2학년은 6월 연합평가 등 3차례 시험을 치렀다.

그동안 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는 학교 이름이 빠진 채 제공된 것이어서 학교 간 서열 논란은 지나친 비약

비율과 학생 수 등의 자료를 학교 이름을 삭제한 채 제공했다. 이 자료는 학교 수준을 다른 학교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다 항상 및 하락의 정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10년 11월 장학금 교육감 취임 이후 고교 1, 2학년 연합평가를 기준 4차례에서 2차례로 줄였다. 일부 학교에서 치렀던 사설 모의고사는 아예 못하도록 했다. 또 3월초 치렀던 초·중학생 전국단위 교과학점 진단평가도 사실상 거부하고 치르지 않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간 서열과 격차가 드러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 내부 협의를 거쳐 자료제공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는 학교 이름이 빠진 채 제공된 것이어서 학교 간 서열 논란은 지나친 비약

이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학교 진학부정 등은 서로 전화로 성적 결과를 확인하는 등 번잡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선 지난 4월 3학년 학생들의 모의고사(1등급) 성적 하락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이뤄진 조치로 보고 있다. 또 한 일반계 고교생 최상위권 성적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지난해 수능도 하락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능의 경우 최상위 등급 비율은 다소 떨어졌지만 표준점수 등은 전국 최상위며, 학력의 의미도 점수 일변도가 아닌 적적 적응능력, 창의성 등이며 환경하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검찰, 전남대 총장선거 부정의혹 수사

## 박창수·이병택 교수로 암축

전남대 총장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교육과학기술부에 1위와 2위 후보로 추천된 박창수(59·의대) 교수와 이병택(55·공대) 교수로 암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최근 박 교수와 관련 교수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 교수 층 인사들도 불러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총장 후보자로 나선

10명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총장 선거 과정에서 식사 대접 등 교육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을 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교수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김운수

전남대 총장의 퇴임 이전에 수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대 총동창회 “총장직선제 폐지” 촉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가 대학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총장 선거에 대한 수사와 관련, 학교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전남대총동창회는 11일 김운수 총장과 대학평의원회(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삼의기구)에 총장 직선제 폐지를 전제로 한 학칙개정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동문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미 직선제 유지를 교육역량강화사업이 탈락돼 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구조개혁 중점추진대상으로 선정이 확실시돼 거점 대학의 위상 실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최근 총장 당선자의 검찰수사와 관련해 지역민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검찰의 수사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물 05시 27분 해진 19시 48분

달름 00시 07분 달진 13시 51분

## 낮 최고 30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덥겠다.

광주	구름많음	22/30°C
목포	구름많음	21/27°C
여수	구름많음	23/28°C
나주	구름많음	22/29°C
완도	구름많음	22/29°C
구례	구름많음	22/30°C
강진	구름많음	22/30°C
해남	구름많음	22/30°C
장흥	구름많음	21/30°C
순천	구름많음	22/28°C
영광	구름많음	22/29°C
진도	구름많음	22/29°C
전주	구름많음	22/29°C
군산	구름많음	22/28°C
남원	구름많음	21/29°C
흑산도	구름많음	22/26°C

식중독지수 저의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오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단	남서~서	0.5~1.0m	07:59	01:17
남서 면비단	남서~서	0.5~1.5m	21:01	13:48

남해 서부 일비단

남해 서부 일비단	남서~서	0.5~1.5m	여수	09:13
면비단	남서~서	1.0~2.0m	16:00	21:53

◇주간날씨

날짜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날씨	23/30	24/28	24/27	23/28	23/27	23/27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광주 가짜약사 둔 약국 30곳 고발

## 전의총, 전국 203곳

국 53곳을 고발해 39곳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올해 3월 불법행위로 고발한 약국 127곳 중 110곳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의총이 이번에 고발한 약국은 서울(125곳), 경기(30), 광주(30), 인천·충남(8), 강원(2) 총 203곳이다.

이중 광주는 남구가 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산구·동구 7곳, 서구 5곳, 북구 3곳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창업30주년**

**30% OFF SALE**

[www.kjhr.com](http://www.kjhr.com)

**드리며 섭기고  
나누며 전하는 교회**

# 광주신일 교회 입당 봉헌 및 임직감사예배

일시: 2012. 7/14(토) 오후2시 장소: 광주신일교회 대예배실

이광고로 출대장을 대신합니다

담임목사 한 기 승

장사 장경동 목사 외 디수

**미망 미망 성령바람  
복통설치**  
**7. 15(주일)~18(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신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운암동 65-8)  
062) 523-9419, 609-0004 F.062) 522-4834

찾아오시는길

운암3단지  
롯데마트  
백산불루밍(8)  
광암교  
광주은행  
동원동  
광주신일교회  
광주문화예술회관  
동운고가  
백산불루밍(8)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광주신일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대예배당 2,500석을 포함한 연면적 5,000평을 건축 및 리모델링 하여 입당봉헌과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주신일교회 교우 일동 -